

아리타 도자 미술관

아리타 도자 미술관은 1874 년에 지어졌으며 과거 도자기 창고로 사용된 건물입니다. 1954 년에 개관했으며, 사가현 최초의 박물관이자 당시 세계에서 3 번째로 문을 연 도자기 전문 박물관이었습니다. 건물 외관은 석조로 되어 있지만, 내부는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.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전시용 장식장과 케이스, 램프는 1954 년 개관 당시부터 사용된 것입니다.

구 다시로 가문 서양관이 2018 년에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에 영향을 받아 본 미술관도 1870 년대에 세워진 점을 고려하여 메이지 시대(1868~1912)를 중심으로 전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.

하지만 소장품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은 에도 시대(1603~1868) 후기의 아리타 도자기의 우와에쓰케(*overglaze decoration*, 상회칠) 작업 이전까지의 모든 생산 공정을 묘사한 청화백자(일본에서는 소메쓰케(染付)라고 함) 대형 접시입니다. 1830 년대~1850 년대에 만들어진 이 대형 접시는 사가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 접시에 그려진 그림은 아리타 도자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전시하고 있는 아리타초 역사민속자료관 동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.

이 미술관 건물은 아리타초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일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